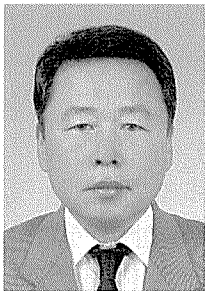


깎짚 대란이 다가온다!



새한국오리협회 고문
장규호

온 나라가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그 피해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복과 함께 내린 비로 초복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마음이 더 착잡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왕겨가격이 오르고 있어 농가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왕겨의 수급물량에 따라 그 가격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폭이 커지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쌀 생산량이 줄고, 벼 째로 옮겨 도정을 해, 벼 산지에는 겨가 없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농가에서 깎짚으로 사용할 대체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겨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 계절별 수요 증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왕겨의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왕겨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세는 계속 될 전망이며, 머지않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깎짚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차원에서 농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체품은 없는가?

있습니다. 톱밥을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왕겨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여럿 됩니다. 다만 대체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전과는 달라져야 하기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깔짚의 환경개선 효과에 주목할 것!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사육비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움직이는 현금에 촉각이 곤두서고, 아무래도 더 싼 것만을 찾는 경향도 있습니다. 왕겨의 경우도 구하기 쉽다는 것이 많은 농가에서 사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적의 바닥상태를 유지 할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선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왕겨는 수분 흡수율도 낮은 편이고, 뽕족한 형태로 인해 우리의 피부에 상처가 생겨 품질도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톱밥을 가지고 왕겨와 비교 사육실험을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사육성과 품질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품의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높은 수분흡수율, 양질의 품질 등으로 결국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이루는 등의 잠재적인 이익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정보수집.

수 많은 정보기술 관련 키워드가 쏟아지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리 키우는 농장에서 뭘..."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정보수집을 한다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입니다.

대체품의 수급경로는 어떻게 되며, 연간 가격변동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와 대체품목별 특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농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

게 적용이 가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질 퇴비 공장 등과의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3. 공동구매를 통해 농가의 입지를 굳힌다.

농가에서 깔짚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확보하고, 단위농가 또는 조합 등을 통한 공동구매로 구매력을 높인다면 공급자와 농가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커다란 차에 실어와서 쏟아놓고 가면 그만이었지만, 포장형태나 거래 형태 등 다양한 조건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과 적은 비용으로 축사 환경과 품질 개선을 하고 있는 예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기발한 방법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신대륙이 없다고 할 때, 콜럼버스는 끝까지 확신하며 결국 신대륙을 찾아 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작은 차이로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기에 더욱 힘 내시고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